



제70주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부산시지부 주최... 박종환 총재·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400여 명 참석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월 25일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유엔기념공원에서 변종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과 군 및 보훈관계자, 경남정보대 학생, 시민, 자총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70주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 예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 지키면서 진행됐다. 이날 부산시지부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국민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의지로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이 6·25전쟁 유엔전몰용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환 총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유엔 전몰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귀중한 결실이었으며, 한국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참전국에 의료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기념사, 추도사, 헌화, 묵념, 진혼곡(비목), 6·25노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운영위 월례회의

회의정례화 및 봉사활동용 조끼 제작 등 논의

자총은 6월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중앙운영위원회 6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월례회의에서는 오웅필 중앙운영위원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중앙운영위 워크숍 개최 문제와 한마음등반대회 참여, 월례회의 정례화 문제, 위원회가 봉사활동 시 착용할 조끼 제작(200장)에 대해 논의했다.



본부 동정 |

22일 이사회... 정관개정안 승인 등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오는 7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 2층 페스타홀(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임원과 각 시도지부 회장 등 37명이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자총의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이며, 부의안건으로는

사무총장 임명 동의의 건, 정관개정(안) 심의의 건, 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총회 부의사항 심의 결정의 건 등이다. 한편 김평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0일부로 의원면직함에 따라 이번 제3차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을 선임할 계획이며,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역 조직본부장 겸 비서실장이 맡게 된다.

자총,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규탄

북한 규탄 성명서 내고 남북 교류제안 수용 등 북에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짓밟는 폭거'로 규정하고

북한에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자총은 6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을 연 '남북소통의 상징'이 21개월 만에 무너져 커다란 충격을 주었

다"며 "이같은 군사적 도발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선량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자총은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교류 협력방안 수용 ▲대립과 갈등의 낡은 전략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생명공동체'임을 인식하여 함께 번영의 길로 나가는 데 적극 협력 등을 북한에 촉구했다.